

# 전주시, 정원문화 · 정원산업 선도 나선다

### 정원문화센터 운영 ·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추진 통해 발전 초석 마련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정원산업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기업을 육성해서 정원문화의 대중화와 대한민국 정원산업 발전을 선도하기로 했다.

시는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현재 △정원식물 자원센터 이전 △전주지방정원 조성 △전주정원문화센터 운영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도동 항공대 인근 2만5,600㎡의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정원식물 자원센터에는 전주형 정원식물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관리동'이 갖춰진다.

정원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실습장', 다양한 초화를 생산·공급하는 '자동화 온실'이 조성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다년생 초화·관목을 재배하는 '하외포지'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옛 호동골 양묘장을 각각의 주제를 가진 15개 정원과 휴식 및 문화공간을 갖춘 지방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 지방정원이 완공되면 도심 속 정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제공돼 이중

호수와 연계해 전주를 상징하는 웰니스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1일 문을 연 정원문화 복합공간인 전주정원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원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열대식물원과 정원 관련 도서관, 정원 소품 전시장, 강의실 등을 갖춘 이곳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문화 발전을 이끌고 정원 관련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거점시설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정원소재 산업 생산 및 유통에 유리한

전주의 지리적·기후적 여건을 활용해 해마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정원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5월 열린 '제3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103개 업체가 참여하고, 15만1,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정원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앞으로도 정원문화 대중화와 더불어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 전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10월 전주 축제 시즌 '전주페스타 2023'의 14개 축제 홍보를 위해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한복입은 벨리곰이 MZ세대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한복 입은 벨리곰 특별한 추억 선사

### 전주페스타 홍보콘텐츠... 31일까지 풍남문 광장 설치

10월 전주 축제 시즌 '전주페스타 2023'의 14개 축제 홍보를 위해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한복입은 벨리곰이 MZ세대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벨리곰은 전주페스타 2023 오프닝축제 기간인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에 설치되어 축제를 방문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7m의 대형 벨리곰과 함께 전주의 특색을 살려 특별히 색동저고리 등 한복을 입은 아기 벨리곰 3마리가 MZ세대 및 어린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전주에 서만 볼 수 있는 벨리곰으로 전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김욱기 기자

벨리곰은 10월 31일까지 풍남문 광장에 설치되어, 전주여행객들에게 풍남문을 배경으로 한 전주만의 포토존을 제공하고, 10월 한 달간 전주페스타 2023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숙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시는 전주페스타 2023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열리던 다양한 축제들을 모아 시즌제로 개최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MZ세대들에게 핫한 아이템을 전주스럽게 디자인한 이번 축제 콘텐츠는, SNS를 통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전주를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기억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촉키로

### 시, 의원 3명 · 주민대표 10명 · 전문가 2명 총 15명 구성 계획

전주시는 제10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10월 14일)됨에 따라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의회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의회 의원 3명(전주 1, 김제 1, 완주 1) △주민대표 10명(전주 6, 김제 2, 완주 2)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날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김제시·완주

군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각 시·군에 추천을 요청했으며, 김제시·완주군에서 시·군별 의회와 협의해 추천한 의회 의원과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전주시 주민대표 구성을 위해 전주시 폐기물시설축진법 조례에 따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전주 11개 마을 대표에게 마을별 2명씩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하고, 마을별로 공고문을 게시했다.

시는 마을별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끝으로 전문가의 경우 △공공립 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연구원 △환경 관련 분야의 박

사학위 취득자 등 환경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향후 구성되는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문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감시요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 6명, 리사이클링타운 7명, 매립장 9명이 각각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시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소각장과 리사이클링타운은 이달 중에, 매립장은 다음 달에 위촉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소각장·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을 요청했으며, 매립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전주시와 협의하는 법적기구로,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 의원)가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철거되고 훼손되었으나 최근 발굴조사로 북동편 일원 성곽이 확인된 전주부성의 복원과 역사문화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전주부성 문화재활용사업' 부지와 학교·공공 급식의 수요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건립을 필요로 하는 월드컵경기장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정성길 위원장과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시설과 부지를 두루 살펴며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며 "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돼 시민 편의와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 새전주로타리클럽, 삼성휴먼빌에 냉장고 · 주방용품 전달

국제로타리3670지구 새전주로타리클럽(회장 김성택)은 지구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삼성휴먼빌에 냉장고 및 주방용품(전골냄비)을 전달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4명의 학생들이 지내는 곳으로 고장난 냉장고 교체 및 식판문화가 아닌 가정식 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주방용품을 전달했다.

김성택 회장은 "자라는 아이들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인숙 원장은 "꼭 필요했던 냉장고와 정성스런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새전주로타리클럽



클럽에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